

대학입시 군별 모집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 현 주 영파여고 교사

문민정부 이후 지금까지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온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교육개혁 조치만큼 국민 대중의 폭넓은 관심을 유지해 온 것은 아마도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 유난히 교육열이 높기로 정평이 나 있는 우리 학부모들이기에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번의 수정 발표가 있을 때마다 관심 어린 국민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반향 또한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교육개혁 조치로 인한 다양한 변화들 중에서 국민들에게 민감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입시제도의 변화일 것이다. 수능능력시험 제도와 군별 복수지원제로 설명할 수 있는 현행 입시 제도는 그 도입 초기부터 각급 학교 진학 담당자는 물론이고 사설학원과 학부모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던졌으며 아울러 교육계 전반에 체질 개선을 요구하기에 충분하였다.

무엇보다도 지원자들에게 상당한 폭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군별 복수지원제의 도입은 변질된 중등교육의 본래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당국의 고심어린 결정이었다고 본다. 입시 중압감에 시달려 온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줌으로써 고교 교육의 정상화, 세부적으로는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 계발과 경험 습득의 기회 보장이라는 교육개혁의 기본 취지를 뒷받침하려는 교육당국의 결정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과

거 단수지원제에서 발생했던 일회적 선택의 부담과 그에 따른 실패 가능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원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입시중압감을 덜어주어 고질적인 입시 중심 교육의 병폐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근본 취지였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근본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도 적지 않아 나타나고 있어 방법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도한 입시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고교와 대학의 행정 마비 현상 등이 복수지원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은 형편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복수지원제의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학습자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

군별 복수지원제의 가장 큰 효용은 지원자가 다양한 진로 희망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입시 일선에서 수험생을 지도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것은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자신의 모교로 삼을

대학을, 심지어 평생의 진로를 어느 정도 규정하게 될 전공 학과까지도 입학시험 점수에 맞추어 단 며칠 만에 결정한다는 점이었다. 마치 도박이라도 하듯이 결정한 전공 선택은 후회로 이어지기 쉽고, 우리는 실제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며 재수의 길을 걷는 졸업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전공과 자신의 적성이 맞지 않는다 하여 전과나 편입의 방법을 택하는 젊은이들을 보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입시라는 것은 그 특성상 단순히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과정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개인의 미래에 관한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평생의 삶과 직결되는 직업관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나이의 지원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다양한 방향을 고려하고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대학과 하나의 전공 학과를 선택하는 결과로 마무리되겠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좀더 다양한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지원자의 심적 여유와 더불어 자신의 적성을 다시 한 번 고려할 기회를 공식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2. 진학 가능성에 대한 최대한의 검증 기회 제공과 무모한 지원의 억제

모든 학생들이 그저 대학 진학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입시에 실패한 수험생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재수·삼수의 길뿐이다. 실패자는 입시 준비 이외에 익숙한 일이 없으며, 다음 학년도 진학 준비 외에는 어떤 가능성도 부모에 의해 일단 차단되어 버린다. 전국의 거의 모든 입시 실패자가 이와 동일한 길을 선택한다. 부모와 수험생들은 재수를 선택함으로써 과년도 입시보다 월등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수험생 자신에게 일 년을 재투자할 만큼



절대적인 일인지에 대해서는 선불리 회의하지도 자문하지도 않는다.

절대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진학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현재의 사회적 인식하에서 입시 지향이라는 비생산적이고 무모한 대규모 낭비 행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지난해 복수지원을 최대한 허용한 결과, 수험생들이 성적 수준에 맞게 대학을 골라갈 수 있게 됨으로써 재수생이 크게 줄었다는 한 조사 기관의 보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단수지원제에서 특정 대학에 지원했다가 실패한 수험생들은 대개 입시운과 지원시의 무리한 욕심 등 성적 부족 이외의 변수를 탈락 이유로 판단하고 그것을 자탄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지원자 자신의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검증이 입시과정을 통해 충분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일선에서 입시 지도를 해본 교사라면 쉽게 납득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개의 대학에 복수지원을 보장하는 경우, 상위권의 지원자일수록 어느 한 대학이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합격한 대학이 설령 지원자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재수를 선택함에 그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복수지원시에는 상위권 동시합격자의 이동으로 인하여 중위권의 추가합격이 대규모로 발생하는데 이 때에도 재수 선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중·하위권 지원자의 경우 성적순으로 밀려

나 추가합격에서도 실패할 경우, 자신의 학력 수준 격차를 인정하고 진로 자체를 수정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결과는 재수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거나 검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많은 입시 지도 교사들은 경험적으로 이와 같은 분석에 동감할 것이다. 요컨대, 여러 번의 지원과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지원자와 학부모의 판단이 좀더 객관화되어 간다는 효과를 지적하는 것이다. 물론 복수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훨씬 크겠지만 진학가능권에 있는 수험생의 합격 기회 보장이 안 될 때 발생하는 비생산적이고 무모한 제도전 비용 또한 무시 못할 낭비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3. 대학의 특성화 노력과 경쟁력 제고를 유도

군별 복수지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대의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수험생들이 복수 합격 후에 한 대학을 골라 갈 수 있게 됨으로써 중·하위권 대학들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당초 발표한 합격자가 한 명도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뿐 아니라 예비합격자마저 등록을 포기하여 추가입시를 치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해당 대학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복수지원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 사업 기관으로서의 대학은 대학으로서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대학의 경쟁력은 자유 경쟁의 시장 원리가 보장될 때 궁극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지원자가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은 해당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의 질이고, 그 외에도 졸업생의 활동 정도나 학교의 전통 등도 선택 기준이 될 것이다. 대학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자들에게 선택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대의 미달 사태는 복수지원제도의 탓이라기보다는 해당 대학이 대학끼리의 경쟁력에서 그만큼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는 대학측의 자성이 선행되어야 궁극적으로 해결 가능하리라 본다. 결코 동시합격자들의 이동으로 인해 지방대의 재정적 어려움과 미충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대학 스스로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IMF 사태로 인한 학비 및 거주비의 부담도 지방대 선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적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별 모집 제도는 장기적으로 각 대학이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리라 기대된다. 대학에 대한 선택권이 철저히 수험생에게 주어지고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는 한, 각 대학은 우수한 지원자를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향후 대학 입학 정원보다 지원자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4년제 대학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수도권 대학들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까지는 낮아질 것이라 해도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일대일 이하가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결국 수도권 지원자의 경우 복수지원제를 통한 폭넓은 수용책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는 200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 복수지원에 따른 미등록·추가등록 등을 없애고 수험생 편의를 위해 공동관리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수험생의 지원상황을 관리하도록 한다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학생은 지금까지처럼 여러 대학에 복수지원하되 지원 대학간 선호순위를 적어 내고 대학도 전형결과에 따라 합격순위를 제출하면, 대교협이 이를 컴퓨터로 조합, 1개 대학에만 최종 합격하도록 하고 이를 대학에 통보, 발표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과 고교의 입시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동시합격으로 인한 대이동의 혼란을 보완하는 방법인데, 방안대로 추진된다면 효율적

인 입시관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대학에 대한 선택은 철저하게 지원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뿐 아니라 합격 후의 선택도 가능하다면 수험생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적어도 대학만이 아니라 전공 학과까지 결부된 문제이기에 자율적 선택권은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학들은 지원자에게 평가받는 경쟁력있는 가치로서의 교육 내용과 연구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 대학의 경쟁력은 기대한 만큼 향상된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지원자에게 대학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는 교육부의 정책에 호응하여 각 대학이 현행 입시 제도하에서 군별 배치를 선택함에 있어 계산적 결정을 삼가야 한

다. 이는 동일 군 내에 유사집단에 속하는 대학들이 배치됨으로써 자칫 지원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현주

경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서울 경민 중학교와 영파여중 교사를 거쳐 현재 영파여고에 재직중이다. 1995년과 1997년에 하이텔 교사 통신동호회 '선생님들의 작은 공간(pedagogy)' 회장을 역임하였고, 저서로 교단에세이 『세번째 개똥을 씹으며』를 발표하였다.